오바루 메가쏠라 발전개시!~정령도시중에서 처음으로 시도

서구의 서부나카타매립장에 건설된 오오바루 메가쏠라발전소가 2월8일부터 발전을 개시합니다.

시 소유지에 민간사업자가 태양광패널을 설치하여 이를 시가 15 년간 리스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재생가능한 에너지인 태양광을 활용하여,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뿐만아니고, 생산하는 마을을 목표로 합니다. 지자체가 메가쏠라발전업자가 되는 것은 규슈에서 처음으로, 정령도시로는 첫 시도입니다!

년간 추정되는 발전량은 1 1 6 만 kWh 로, 일반가정 약 220 세대분의 규모입니다. 리스기간 종류후에는 시에 무상으로 양도되며, 20 년간 약 3 억 1 천만엔의 순이익을 올릴 계획입니다.

부지면적	11,447 ㎡ (3,840 장)
(패널설치수)	* 평지 : 4,617 ㎡ (1,152 장)
	* 경사지 : 6,830 ㎡ (2,688 장)
년간발전량	116 만 kWh
전기판매수입예상	8 억 3,160 만엔
(20 년간)	
사업비	5 억 2,188 만엔
(20 년간)	* 리스기간: 5 억 508 만엔
(20 = 2)	* 종료후유지관리 : 1 천 680 만엔



오바루 메가쏠라 발전소전경 (후쿠오카시 소방국제공)